



MBTI® STEP II™

Form 전문해석 프로파일

▼ 나의 MBTI® 성격유형 : **ISTJ**









- 이 름 : 박양하
- 생 년 월 일 : 1987.10.04
- 성 별 : 남
- 검 사 일 : 2024.03.13
- 담당전문가 : 김지현

어세스타

I. 전문해석 프로파일을 보기 전에

MBTI® Form Q (Step II™) 전문해석 프로파일은 MBTI®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Form M (Step I™) 결과는 4가지 선호지표로 개인의 성격유형을 보여줍니다. 다음 Form Q (Step II™) 결과는 4가지 선호지표에 해당하는 5가지 다면척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개인의 성격유형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BTI는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주로 어느 방향으로 쓰는가에 따라 외향(Extraversion)과 내향(Introversion)으로 구분하고,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릴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고(Thinking)과 감정(Feeling)으로 구분하며, 어떠한 생활양식을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판단(Judging)과 인식(Perceiving)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향 (Extraversion)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에너지를 사용	← 에너지 방향 Energy →		내향 (Introversion)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에너지를 사용
	감각 (Sensing) 오감을 통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	← 인식기능 Information →		직관 (Intuition) 사실, 사건 이면의 의미나 관계, 가능성을 더 잘 인식
	사고 (Thinking) 논리적, 분석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	← 판단기능 Decision Making →		감정 (Feeling)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판단
	판단 (Judging) 외부 세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	← 생활양식 Life Style →		인식 (Perceiving) 외부 세계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융통성있게 접근

MBTI 검사를 받으면, 4가지 선호지표에서 개인이 어떤 특성을 더 선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하면 16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되며, 4가지 선호는 문자로 표시됩니다.

MBTI는 개인의 타고난 선천적인 선호경향을 파악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의 압력이 있거나, 선호경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자신의 선호경향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참 유형(True Type)을 발견하고, 자신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ti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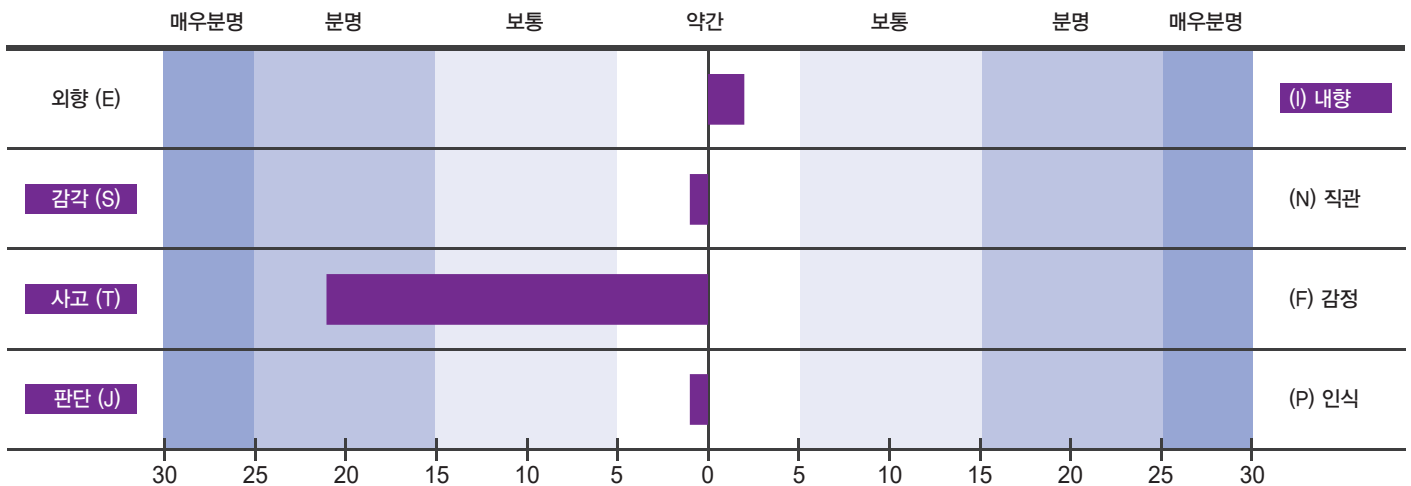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칼 융(Carl G.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캐서린 브릭스(Katharine C. Briggs)와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Briggs Myers)에 의해 개발된 성격유형 검사입니다. MBTI의 한국어판 검사는 1988~1990년에 심혜숙, 김정택 박사가 CPP사로부터 한국어판 저작권을 받아 MBTI Form G를 개발하였고, 2002년에는 Form K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어세스타가 상표권과 출판권을 갖고 한국에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본 검사는 Form Q로 2012년에 개발되었습니다.

II. Step I™ : MBTI® Form M 결과

아래의 그래프는 개인의 성격유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양하** 님이 응답한 4가지 선호지표는 막대그래프의 방향과 길이로 나타냅니다. 막대그래프 길이는 선호방향의 일관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막대그래프의 길이가 길수록 개인의 응답이 특정 선호방향으로 더욱 일관됨을 나타내고, 검사결과가 응답자의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선호 분명도 (Clarity of Preferences)



※ 선호 분명도 지수는 양극의 선호경향성 중 어느 쪽에 대한 선호가 분명한지를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이것은 선호의 유능, 성숙 또는 발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6가지 성격유형도표

MBTI 검사를 받으면, 앞에서 설명한 네 가지 쌍에서 개인이 각 기 어떤 특성을 더 선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쌍에서 더 선호하는 특성의 앞 글자를 각각 따오면 네 자리의 유형코드가 만들어 지는데(예: ISTJ=내향형(I) + 감각형(S) + 사고형(T) + 판단형(J)), 이 유형코드가 그 사람의 MBTI 성격유형이 됩니다. 따라서 MBTI 검사결과로 생길 수 있는 성격유형은 모두 열 여섯 가지입니다. 열 여섯 가지 성격유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각 성격유형별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Ⅲ. ISTJ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ISTJ

세상의 소금형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성실한	철저한	체계적인	조직적인	질서를 지키는
근면한	사실적인	믿을만한	현실적인	인내심이 있는

ISTJ유형인 박양하님은 체계적이고 근면하며, 누가 보아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일을 진행할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철저하게 완수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일에만 집중하는 편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 경험을 잘 적용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에도 인내심이 강한 편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맡은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박양하님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관심이 많으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자세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박양하님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둘 때 만족하는 편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험해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 주장 등에 대해서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편 박양하님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결론을 내릴 때 자신의 주관에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판단하고자 하며, 특히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많이 고려합니다. 따라서 주위의 사람보다는 주어진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논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박양하님은 자신이 속한 조직(가정, 학교, 직장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거나 변화가 많은 환경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저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대개 말이 적고 신중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일이 적습니다.

박양하님과 같은 ISTJ유형은 일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세심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 안정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업무 환경을 갖춘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법, 보건, 일반 사무직, 금융, 공학 등의 분야에서 이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ISTJ형인 박양하님의 보다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점들

- 시간 일정이나 약속을 잘 지킨다.
- 끈기가 있고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잘한다.
-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우며, 단호하고 양심적이다.
- 일을 처리할 때 세부사항을 잘 챙기고 꼼꼼하게 관리를 잘한다.
- 의사 결정할 때 과거의 경험과 상황의 사실적인 측면들을 잘 활용한다.



생산적인 업무 환경과 목표

- 독립적이고 실무적인 과제나 프로젝트
-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조용한 업무 환경
- 행정적인 분야 특히 관리, 재무, 기록과 관련된 업무
- 성실하고 업무중심적이며 사실과 성과에 중점을 두는 동료
- 주어진 업무가 명확하고, 일에 대한 보상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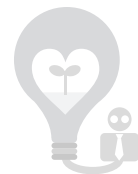
대인 관계 스타일

-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한다.
- 과업지향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 개인적이며 사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 다른 사람의 감성적인 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타인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것보다 업무를 성취하는 것에 더 열중한다.



개발이 필요한 점

- 변화와 다른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찾는 연습을 하며 융통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성격유형 결과가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유형 중에서 일부는 자신에게 적합한 성격유형을 찾기 위해 선호 분명도 지수가 낮은 선호지표에서 반대선호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격유형은 개인의 흥미, 가치, 그리고 고유한 재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귀하가 가지고 있는 반대 선호경향성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결과와 자신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담당 전문가로부터 보다 적합한 성격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V. 성격유형의 심리적 기능 및 상호작용

본 프로파일 앞에 제시된 4가지 선호지표 중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이라는 두 개의 선호쌍은 **박양하** 님이 일상 생활에서 어떤 심리적 기능을 선호하느냐를 나타냅니다. 즉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는 감각(S) 또는 직관(N) 기능을 사용하고, 그 정보를 조직하여 결론을 내릴 때에는 사고(T) 또는 감정(F) 기능을 사용합니다.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감각(S), 직관(N), 사고(T), 감정(F)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활용하지만, 각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더 많이 사용하는 기능과 더 적게 사용하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이 때 어떤 기능을 더 자주 편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 심리적 기능을 주기능, 부기능, 3차기능, 열등기능으로 구분합니다. ISTJ 유형인 **박양하** 님의 심리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ISTJ 성격유형의 심리적 기능



ISTJ 성격유형의 긍정적 상호작용

박양하 님은 실용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제 해결법을 선호하며, 세부 사항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 다룹니다. 또한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도 인내심이 강하며,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신뢰하고 세부적인 기억력과 논리적인 판단력을 토대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결심하면 다른 의견에 쉽게 설득되지 않는 편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한 후 다른 일로 넘어가며,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ISTJ 성격유형의 부정적 상호작용

박양하 님이 자신에게 편안한 기능만 사용하고 다른 기능을 잘 활용하지 않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박양하** 님의 성격유형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심리적 기능 > > > >

주기능

감각: S

부기능

사고: T

3차기능

감정: F

열등기능

직관: N

■ 주기능, 부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 감각(S) 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 정보만 신뢰하며, 독단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 사고(T) 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세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 주기능, 부기능의 사용이 억제될 경우

- 정해진 시간이나 계획, 절차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이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3차기능이나 열등기능이 지나치게 무시될 경우

- 아무 이유 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절망감에 빠지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관심해지며, 자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논리에만 입각하여 판단합니다.

■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경우

- 평소의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해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ISTJ 성격유형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고 보완하려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직관과 통찰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을 완벽하게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V. Step II™ : MBTI® Form Q 다면척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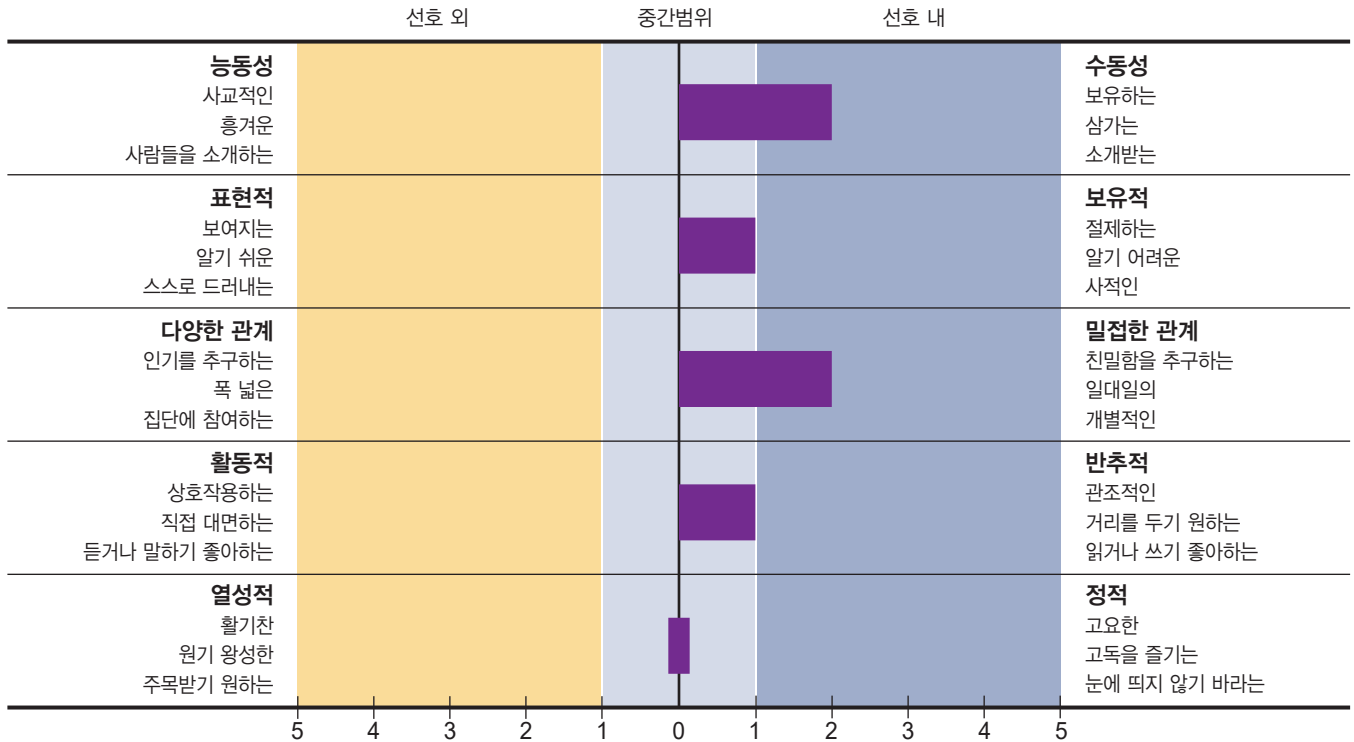
MBTI Form Q의 다면척도 결과는 MBTI의 4가지 선호지표에 해당하는 5가지 다면척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성격유형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막대그래프가 길수록 다면척도의 극단에 위치함을 나타내고, 개인의 분명한 선호를 보여줍니다. 다음의 내용은 선호 내, 선호 외 또는 중간범위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설명이 박양하님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선호 외이거나 중간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호 방향의 반대쪽을 이해하려면 그래프에 설명된 3개의 특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향 (E)

에너지가 외부세계의 사람과 사물을 지향

(I) 내향

에너지가 내부세계 경험과 아이디어를 지향



수동성(선호 내)

박양하님은 모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거나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편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박양하님이 공통점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적-보유적(중간범위)

박양하님은 의사소통 할 때 어느 정도까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모든 면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나 친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반면, 친한 친구에게는 사적인 이야기를 꽤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말을 삼가는 반면, 박양하님이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밀접한 관계(선호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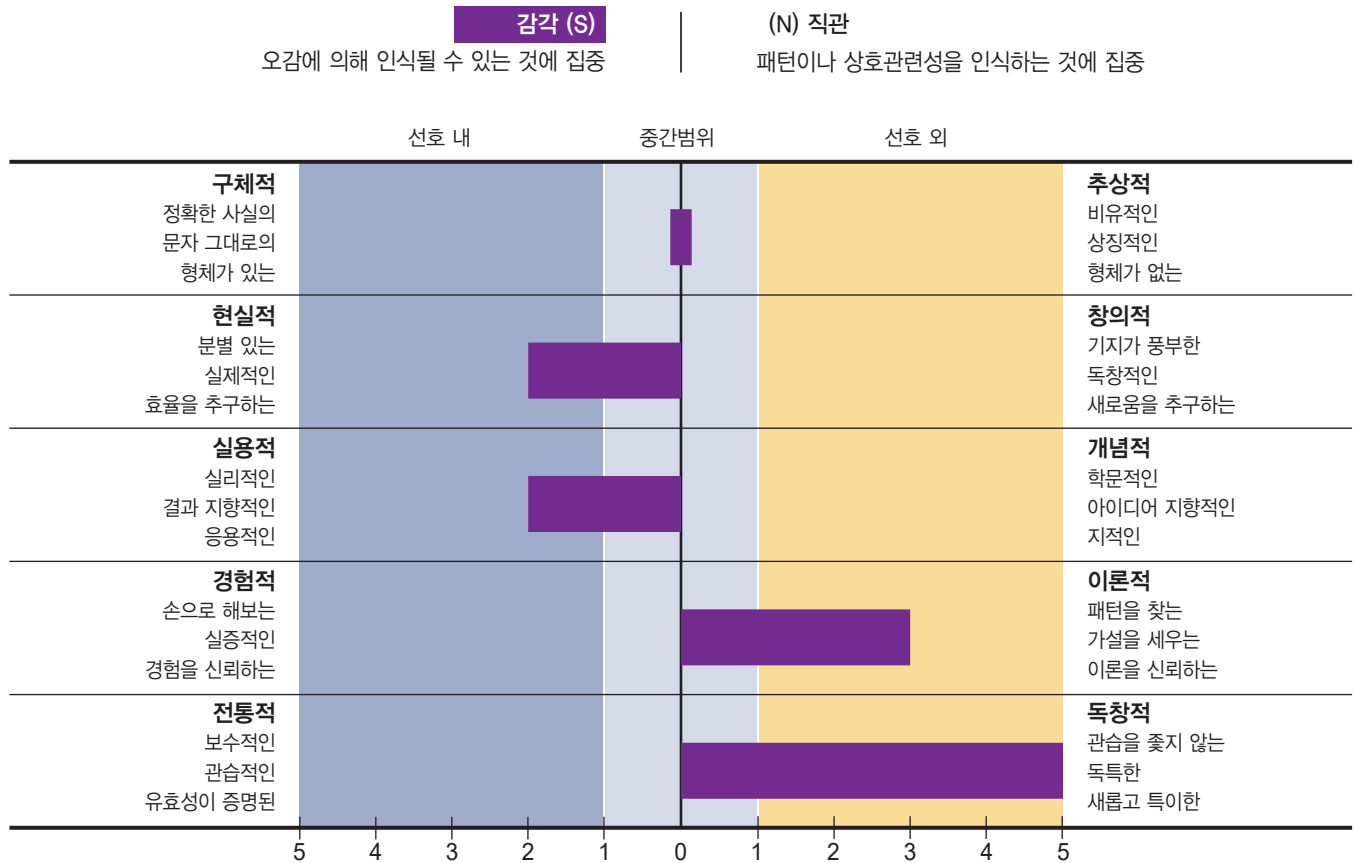
박양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명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일대일 대화를 선호합니다. 친밀감을 느끼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며, 폭넓은 대인 관계보다 깊이 있는 대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과 '친구'를 구별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 때에는 점진적으로 신뢰감을 쌓으면서 서서히 우정을 키워가는 편입니다.

활동적-반추적(중간범위)

박양하님은 상황에 따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한 발 물러서서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는 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선호하고, 개인적인 내용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아합니다.

열성적-정적(중간범위)

박양하님은 대개 말이 적고 조용한 편이지만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조용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활발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양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활달하거나 차분한 특성 중 하나의 특성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추상적(중간범위)

박양하님은 사실적인 정보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사실 이면에 숨겨진 의미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근거를 두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사실 정보가 없더라도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박양하님은 현실감과 아이디어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둘 중 하나를 자신감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선호 내)

박양하님은 상식과 분별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적인 실용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투자되는 시간이나 비용, 에너지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현실적인 행복과 안전을 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용적(선호 내)

박양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이나 자료를 익숙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급격한 혁신과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며,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론적(선호 외)

박양하님은 이론을 신뢰하며, 개별적인 현상이나 경험보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나 의미에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적용해 보려고 하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없을 때 다소 지루해 합니다. 학습할 때에는 사실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이론과 개념을 함께 설명할 때 더 잘 학습하며, 이론이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부 사항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독창적(선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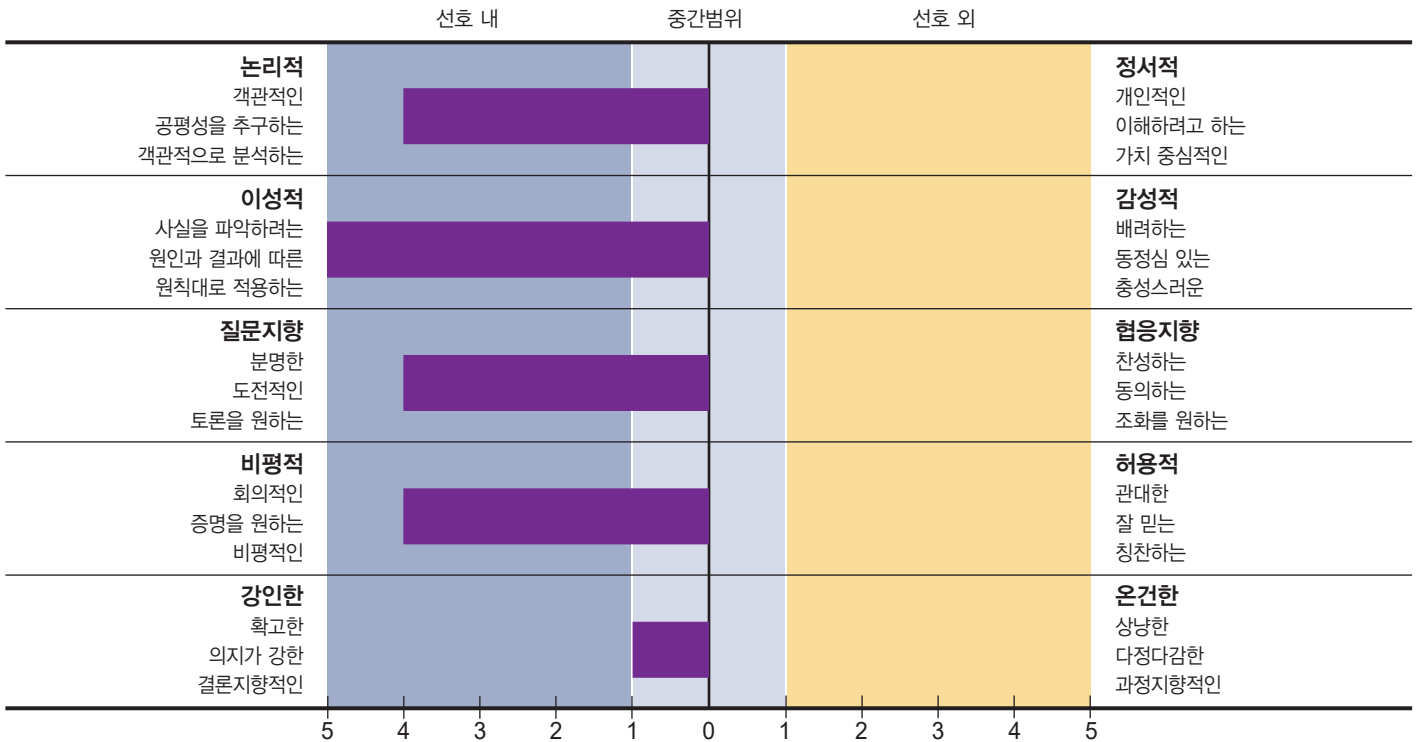
박양하님은 남과 다른 독특함을 좋아하며, 어떤 분야에서도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싶어합니다. 기존 방식의 효과 여부를 떠나 언제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려고 하며, 반복되는 일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가장 동기 부여가 잘 됩니다. 사회나 가정의 전통, 관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고 (T)

객관성에 초점을 두고, 논리적인 분석에 기초한 결론

(F) 감정

조화에 초점을 두고, 개인 또는 사회적인 가치에 기초한 결론



논리적(선호 내)

박양하님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최선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도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정의로움, 공정함, 합리성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이성적(선호 내)

박양하님은 의사결정할 때 항상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겪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동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박양하님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공정하게 대하려고 하며, 상대방도 자신을 공정하게 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지향(선호 내)

박양하님은 어떤 상황이 비논리적으로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질문하며 사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평적(선호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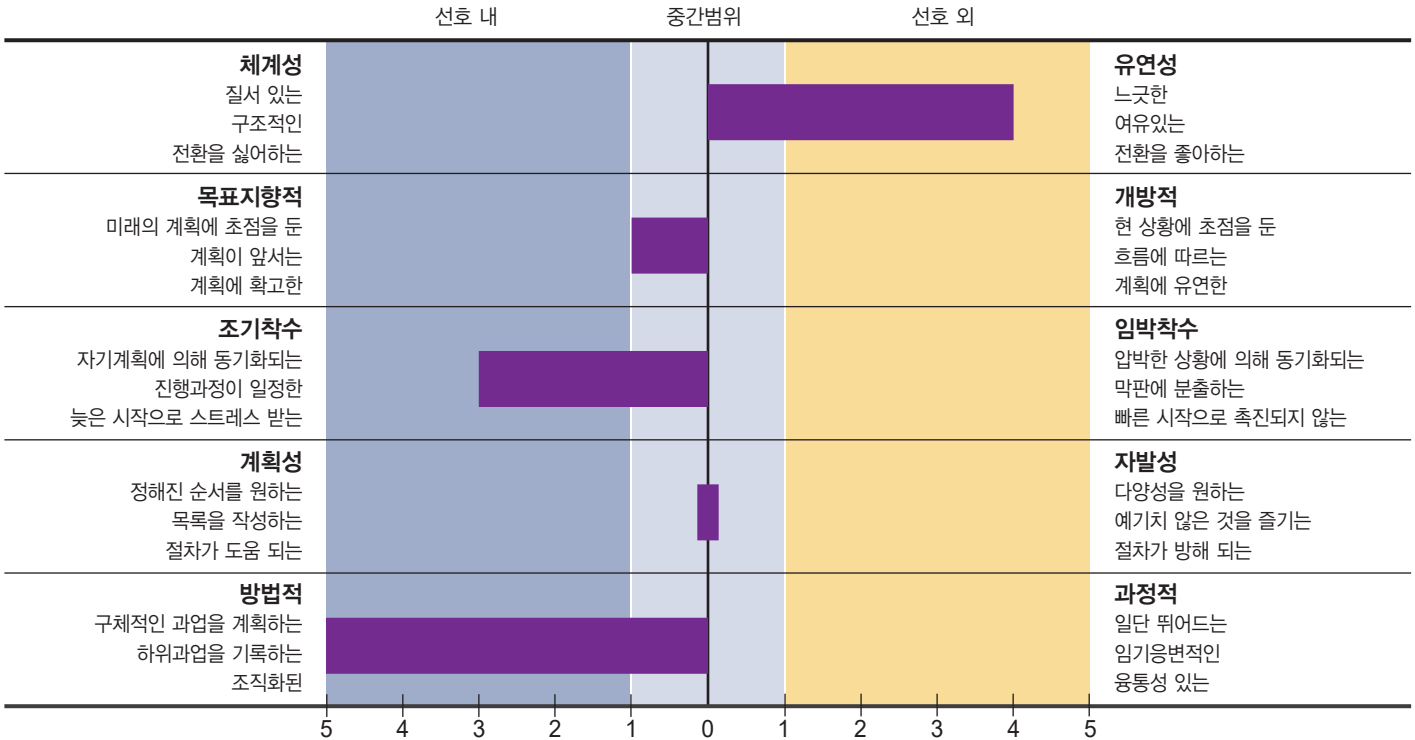
박양하님은 어떤 대상을 볼 때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 되어 있는 것보다는 부족한 점을 먼저 찾아내고 이에 대해 비평함으로써 개선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비평하지 않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인한-온건한(중간범위)

박양하님은 어떤 결정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적용하고자 할 때 필요하면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헌신적이고 온화합니다.

판단 (J)
결정과 마감을 선호

(P) 인식
유연성과 자발성을 선호



유연성(선호 외)

박양하님은 매우 느긋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겨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편입니다. 이미 계획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과제나 일정한 틀이 주어지지 않는 과제를 맡았을 때 성취 의욕이 높아지고 일도 잘 해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여러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 방법을 선호합니다.

목표지향적-개방적(중간범위)

박양하님은 미래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큰 계획 없이 그때그때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거나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미리 계획을 잘 세워두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면 약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는 편입니다.

조기착수(선호 내)

박양하님은 마감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할 때 시간 여유를 두고 시작해서 서두르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감일이 다 되어 급하게 일을 해야 하면 스트레스 받고 실수도 많이 하며 수행이 저조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양하님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일을 진행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계획성-자발성(중간범위)

박양하님은 일상생활에서 절차가 정해져 있는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편안하게 느끼는 편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업무를 할 때에는 룰이 있는 것이 유용하지만 집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집에서는 룰이 있는 것이 유용하지만 업무를 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방법적(선호 내)

박양하님은 장기적인 과제나 복잡한 과제가 주어지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단계를 미리 계획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일을 하는 순서는 물론 그 일에 필요한 도구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미리 선정하고 단계별로 정리해서 준비합니다. 또 설명서를 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설명서를 모두 읽어보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한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 결과요약

검사결과 유형(ISTJ)의 선호 분명도 지수

내향(I) : 약간(2)

감각(S) : 약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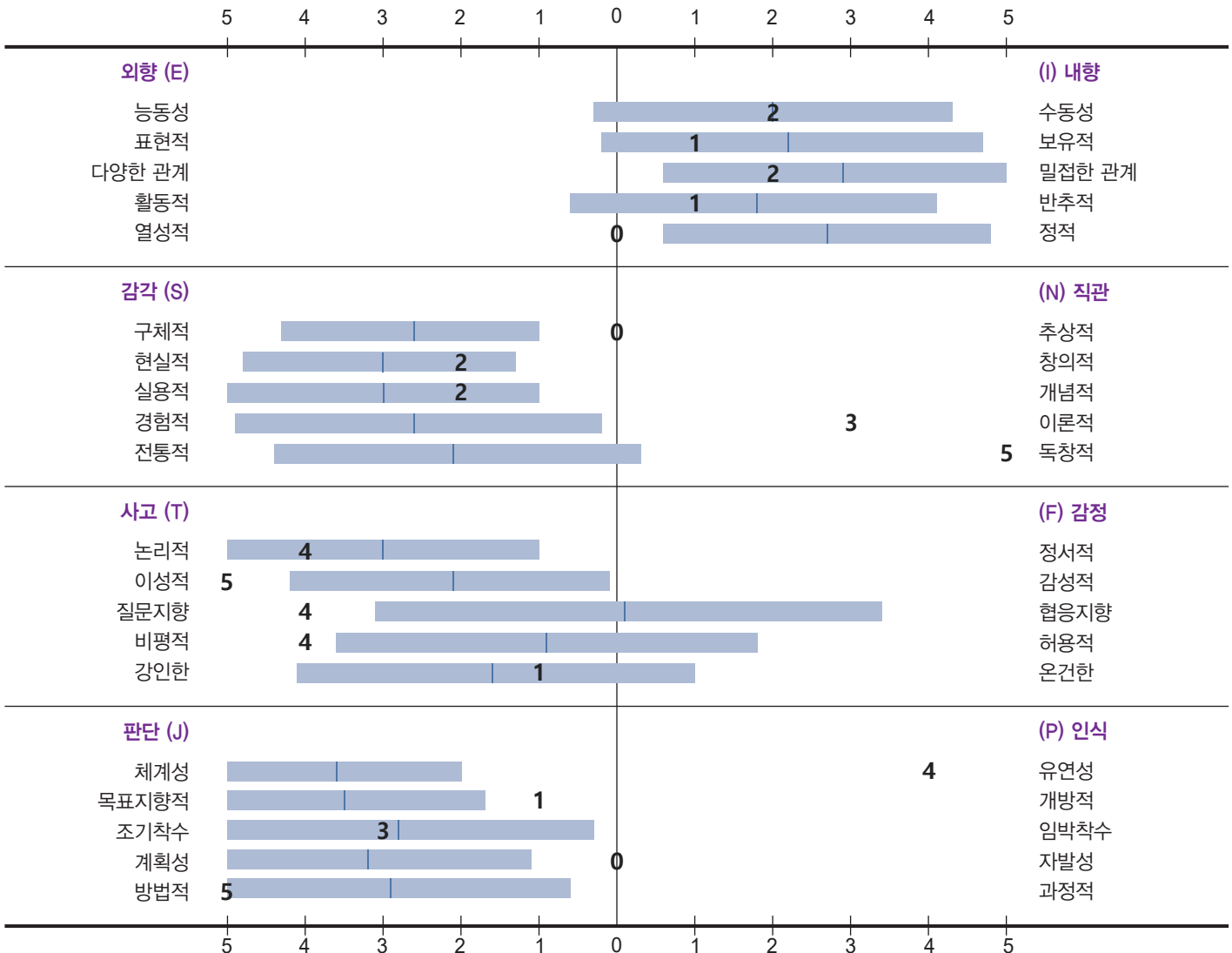
사고(T) : 분명(21)

판단(J) : 약간(1)

전체 ISTJ 성격유형의 평균범위와 다면척도 점수

아래의 막대그래프는 전국표본에서 ISTJ가 나타내는 점수의 평균범위이고, 평균으로부터 ± 1 표준편차 범위(약 68%)를 보여줍니다. 막대그래프 중앙의 수직선은 전체 ISTJ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굵은 숫자는 개인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 기준 : 한국 ISTJ 'Form Q' 532명 데이터



일관성 지수 : 59

일관성 지수는 해당 프로파일 내에서 개인의 다면척도 점수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그 범위는 0에서 100사이입니다. 성인의 일관성 지수는 대부분 50에서 65사이지만, 65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45보다 낮은 경우는 응답자의 점수가 다면척도에서 중간이나 중간에 가까운 점수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응답자가 해당 다면척도의 특성을 상황에 맞춰 원만하게 활용하거나, 문항에 무작위로 응답했거나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한 가지 다면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양가감정을 가지는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응답 수 : 0